

# 수평관계에서 새로운 안전기법 개발해야 할 때

## 현대산업개발(주)대구-부산간 고속도로6공구 현장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족히 2시간이 넘게 걸린다. 그러나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06년부터는 부산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러한 편안함을 주기 위해 30도가 웃도는 무더운 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와 가정을 위해 안전시공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총 10공구 중 6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한성희 소장이 이번달에 소개할 현장이다.

2001년 2월에 착공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6공구는 환경 친화 고속도로, 최고의 안전, 최고의 품질 고속도로가 되기 위해 치밀한 안전시설, 참여하는 안전교육, 책임 있는 안전점검을 2002년 안전관리 방침으로 내걸고 오늘도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월드컵 경기의 열기가 한창인 요즘 현장에 나서면 들어 올 줄을 모르는 한성희 소장은 “성공적인 안전한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우리 개별 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시공을 해야 국가의 대사인 월드컵 또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타 현장의 모범이 되기 위해 자율안전을



한성희 소장

필두로 오늘도 무재해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수평관계에서 선진 안전기법이 창출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새로운 건설 안전관리 기법을 창출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성희 소장은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 상하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악수하고, 어깨를 두들기는 등의 스킨십 사용과 수평관계에서 새로운 현장의 대안을 찾는 중요한 해결방안인 대화를 주

로 많이 활용한다.

97년 남해고속도로 현장에서 무재해 2배 달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재해 개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한소장에게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평범한 답변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 내포하고 있다.

“안전은 재시공이 없습니다. 건축물은 시공을 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재시공하여 바로 잡으면 되지만 안전은 작은 실수 하나가 도리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는 재시공 없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무재해가 안전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임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한다.” 라는 대답에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크다.

지금은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생각하게 하는 한달이다. 현대산업개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6공구 현장에서의 대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소개한다.

### 광범위한 현장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대처

이 현장에서는 안전·환경 책임분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고속도로 현장의 특성상 지역적으로 길고, 규모가 큰 관계로 직원 상호간의 협조 및 책임의식의 부족에서 안전사고가 기인된다는 판단하에 현장의 전 구역을 구역별로 할당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담당직원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역별 안전·환경 점검표를 작성 보고토록하고 있다. 이는 신속하게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또한, 유해위험 작업(교각 Coping 작업, 교대의 SHOE 설치작업 등 기타 위험작업)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전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한다.

안전관리자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작업전 안전작업확인서를 해당 공구장에게 발송하면, 공구장은 안전작업확인서를 담당기사나 작업반장에게 지시하고,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한다.

통보 받은 안전관리자는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소

장에게 보고한다. 이 중 불량사항은 즉시 해당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와 개선명령을 내린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조치되지 않으면 작업이 재개되지 않는다.

이 밖에 지역적으로 넓기 때문에 교육장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집합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자체 공구별로 3개소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공구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자율안전문화 정착

“미약한 힘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주는 나의 작은 선물이지요.”라고 하는 정일구 안전·환경 과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자신을 근로자와 동료의 안전을 지켜주는 작은 안전 지키미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하다.

오늘도 정일구 과장은 무비카메라와 열린 패트병을 가져와 현장을 나선다.

지상의 모든 것을 태울 기세로 내리 쬐는 한여름 태양 아래 종사하는 근로자는 너무도 힘들다고 대변한다. 그래서 정일구 과장은 그 전날 패트병에 어음을 얼려 현장을 돌때 근로자에게 준다. 작은 행동이지만 현장 근로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작은 행동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과장의 지적하는 말에도 마음 상하지 않고 받아 들여 자율적인 안전을 수행한다고 한다.

너무 더워 안전모를 잠깐 벗었거나, 안전수칙을 지키



## 초일류 현장 탐방


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하기 보다는 무비 카메라에 하나하나 담아 안전미팅을 통해 그내용을 보여준다.

이 비디오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디오 속의 주인공은 바로 근로자 자신이고, 거기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미팅에 참여한다. 이 안전미팅에서는 근로자 자신의 작업 내용에서 위험요소 발굴과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함께 토의하여 해결책을 도출해낸다.

그 결과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시정하는 것을 많이 본다고 한다.

건설현장 소장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시를 쓰고, 생각이 깊은 한성희 소장과 마음이 따뜻한 정일구 과장



의 공통점은 마음을 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은 조금 열고 상대방의 마음만 많이 열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한소장의 말과 같이 준공그날까지 마음의 교감을 통해 자율안전을 정착시켜, 그다음 현장에서까지 무재해의 끈을 이어가길 기원한다. 

(취재사진 최종덕)

